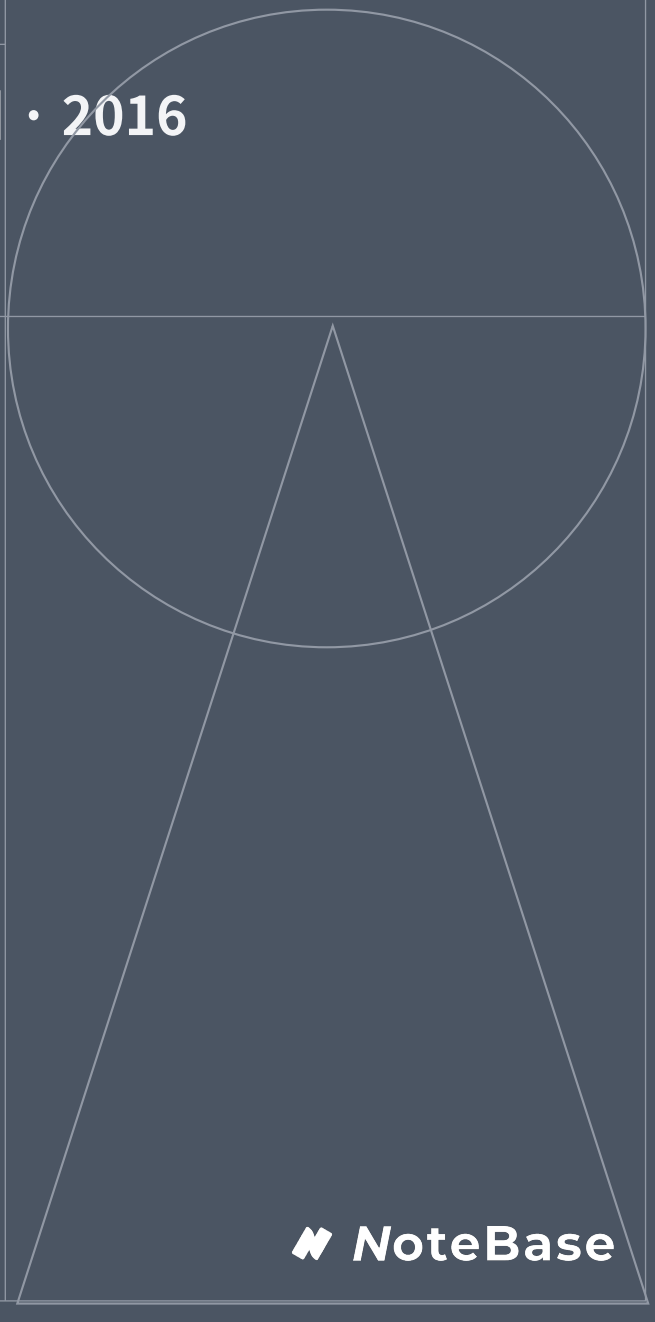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6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6

문 1.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는 주인이 내온 저녁상에 입이 벌어졌다. (매우 놀라다)
② 이 가게에는 그녀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마음에 들다)
③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려 다닌다. (일 처리가 빠르다)
④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둘렀다. (안쓰러워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관용 표현의 실제 의미와 괄호 안 풀이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각 단어의 본래 뜻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표현이다. 문장 전체의 상황을 살피고, 그 표현이 관용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이나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입이 벌어지다'는 몹시 놀라거나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뜻이다. 주인이 차린 저녁상이 대단해 '매우 놀라다'라는 문맥과 맞는다.
② O - '눈에 차다'는 보기에 만족스럽거나 마음에 들다는 뜻이다. 그녀가 가게의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문맥과 맞는다.
③ O - '손이 재다'는 일 처리가 빠르다는 뜻이다. 잔치마다 불려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맥과 맞는다.
④ X - '혀를 내두르다'는 매우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질려서 감정을 크게 드러낸다는 뜻이지 '안쓰러워하다'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낸 데에 놀라 혀를 내둘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상황에서 형이 동생을 안쓰럽게 여길 수는 있지만, 이는 문맥에서 추측한 감정일 뿐 '혀를 내두르다' 자체의 뜻이 아니다. 표현의 사전적·관용적 의미와 상황상 느낄 법한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을 괄호의 뜻으로 바꾸어 문장을 읽은 뒤, 원래 관용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상황상 가능해 보이는 감정이라도 관용 표현 자체의 뜻이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풀이이다.

암기 포인트

입이 벌어지다=놀라다·감탄하다, 눈에 차다=마음에 들다, 손이 재다=일 처리가 빠르다, 혀를 내두르다=매우 놀라다·감탄하다·질리다.

NoteBase

문 2. '사다'의 활용형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구한테 싼값으로 책을 ( ).
② 그는 승진 턱을 ( ) 모두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③ 나는 위험한 짓을 ( ) 하려는 그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④ 기성 권위에 대한 참신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동을 높이 ( ) 싶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사 '사다'의 여러 의미와 문맥에 맞는 관용적 결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다'는 값을 치르고 물건을 얻는다는 기본 의미 외에도, 어떤 일을 일부러 자초하거나 사람·행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다만 '턱'은 '사다'가 아니라 '내다'와 결합하여 '턱을 내다'라고 표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친구한테 싼값으로 책을 샀다'에서 '샀다'는 '사다'의 과거형이며, 값을 치르고 책을 얻었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② X — '승진 턱을 사'라는 결합은 적절하지 않다. '턱'은 음식이나 술을 남에게 대접하는 일을 뜻하므로 '그는 승진 턱을 내어 모두에게 저녁을 대접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위험한 짓을 사서 하다'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자초하여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서'가 문맥에 적절하다.
④ O — '행동을 높이 사다'는 그 행동의 가치나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의 행동을 높이 사고 싶다'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저녁을 대접했다'만 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다'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빈칸의 목적어는 '저녁'이 아니라 '승진 턱'이므로 관용적으로 '턱을 내다'라고 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의 목적어와 동사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물건을 사다', '일을 사서 하다', '행동을 높이 사다'는 가능하지만 '턱을 사다'는 불가능하고 '턱을 내다'가 올바르다.

암기 포인트

물건은 사고, 일은 사서 하며, 가치는 높이 사지만, 턱은 낸다.

NoteBase

문 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leadership – 리더십　② concept – 콘셉트

③ accessory – 액세사리　④ workshop – 워크숍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표준 외래어 표기에 맞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에서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므로 표기가 틀린 선지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단어를 국어의 표기 체계에 따라 한글로 적는 기준이다. 이 문항의 표준 표기는 '리더십, 콘셉트, 액세서리, 워크숍'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leadership의 표준 표기는 '리더십'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다.
② O — concept의 표준 표기는 '콘셉트'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다.
③ X — accessory를 '액세사리'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액세서리'이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선지이다.
④ O — workshop의 표준 표기는 '워크숍'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액세사리'는 실제 발음 습관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표준 표기는 '액세서리'이다. 또한 문제의 부정형 표현인 '어긋나는 것'을 놓치면 표기가 맞는 선지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옳은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 문제의 방향을 확인한 뒤, 각 영어 단어와 표준 한글 표기를 하나씩 대응한다. 익숙한 발음이 아니라 규범으로 정해진 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leadership-리더십, concept-콘셉트, accessory-액세서리, workshop-워크숍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말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는 사정도 들어 보기 전에 <u>딱 잘라서</u> 내 부탁을 거절하였다.

① 명명백백(明明白白)　② 일언지하(一言之下)
③ 지호지간(指呼之間)　④ 청천벽력(靑天霹靂)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 속 관용 표현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과 가장 가까운 한자 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딱 잘라서'는 망설이거나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뜻이다. 일언지하(一言之下)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다.
명명백백은 매우 분명함, 지호지간은 매우 가까운 거리, 청천벽력은 뜻밖의 큰 충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명명백백(明明白白)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매우 분명하다는 뜻이다. '말을 단호하게 끊어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틀리며, 올바르게는 '사실이나 사정이 매우 분명함'이다.
② O — 일언지하(一言之下)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는 뜻이다. 사정을 듣기 전에 단호하게 부탁을 거절했다는 문맥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③ X — 지호지간(指呼之間)은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다. 단호한 말투와는 관계가 없으며, 올바르게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④ X — 청천벽력(靑天霹靂)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뜻밖에 일어난 큰 사건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뜻한다.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올바르게는 '뜻밖에 닥친 큰 사건이나 충격'이다.

오답 포인트

'딱 잘라서'의 '분명하게'라는 느낌만 보고 ① 명명백백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더 듣지 않고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말하기 방식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표현을 먼저 쉬운 우리말로 바꾼 뒤 한자 성어의 핵심 뜻과 대조한다.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함'이면 일언지하, '사실이 매우 분명함'이면 명명백백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일언지하＝한마디로 딱 잘라 말함, 명명백백＝매우 분명함이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世·솅 宗종御·엉製·졩訓·훈民민正·졍音흠
>
>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쭝·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빅姓·셩·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ᄂᆞᆫ ·노·미 하·니·라 ·내 ·이·ᄅᆞᆯ 爲·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 字·쭝·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ᅇᆞᆨ :수·빙 니·겨 ·날·로 ·ᄲᅮ·메 便뼌安한·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ᅮᄅᆞ·미니·라

① 애민 정신 ② 자주 정신 ③ 실용 정신 ④ 창조 정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서 밑줄 친 구절이 드러내는 한글 창제 정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수비 니겨 날로 쑤메 편안케 하고져'는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려는 뜻이므로 실용 정신을 나타낸다.

핵심 개념

애민 정신은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며, '어린 백성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에 드러난다.
자주 정신은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 제대로 소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며,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에 드러난다.
실용 정신은 누구나 글자를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태도이며, 밑줄 친 구절에 드러난다.
창조 정신은 기존 문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로운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 태도이며, '새로 스믈여듧 자를 맹가노니'에 드러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애민 정신'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처지를 딱하게 여긴 데서 드러난다. 밑줄은 백성에 대한 연민보다 글자를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게 하려는 목적을 강조하므로, '애민 정신'이 아니라 '실용 정신'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자주 정신'은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밑줄은 우리말과 중국말의 차이가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을 말하므로, '자주 정신'이 아니라 '실용 정신'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는 뜻은 새 문자를 실제 생활에서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실용 정신에 해당한다.
④ X — '창조 정신'은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든다'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밑줄은 새 문자의 창안 자체가 아니라 쉬운 학습과 편리한 사용을 강조하므로, '창조 정신'이 아니라 '실용 정신'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훈민정음 서문 전체에는 자주·애민·창조·실용 정신이 함께 나타나므로 글 전체의 성격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밑줄 속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라는 표현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과 다른 우리말은 자주, 백성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김은 애민, 새 글자를 만듦은 창조, 쉽게 배워 편리하게 씀은 실용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다름은 자주, 가엾음은 애민, 새로 만듦은 창조, 쉽게 쓰게 함은 실용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 세균 오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기농 농법으로 키운 작물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식품에 '자연산'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려니 믿는 경향이 있다. (①) 특히 유기농 식품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②) 하지만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③) 이렇게 보면 자연식품이 안전하고 더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일 가능성이 많다. (④) 자연 또는 천연이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원인·결과 관계와 뒤 문장의 지시 표현을 바탕으로 문장의 알맞은 위치를 찾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사람들은 '자연산' 표시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2. 특히 유기농 식품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3. 그러나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반대 관점을 제시한다.
4. 세균 오염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관점을 뒷받침한다.
5. '이렇게 보면'으로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연식품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왜 이 순서인가: 주어진 문장의 '때문이다'는 바로 앞의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뒤의 '이렇게 보면'은 그 주장과 근거를 함께 받아 결론으로 이어 가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연산' 표시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을 제시한 직후이므로, 세균 오염이라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을 직접 설명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틀린 위치는 ①이며, 올바르게는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주장 뒤인 ③에 놓아야 한다.

② X
'유기농 식품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뒤에 '세균 오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를 놓으면, 세균 오염이 유기농 식품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처럼 연결되어 의미가 어긋난다. 틀린 위치는 ②이며, 올바르게는 '하지만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뒤인 ③에 놓아야 한다.

③ O
앞 문장의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결과에 해당하고, 주어진 문장의 '세균 오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그 원인에 해당한다. 또한 뒤의 '이렇게 보면'이 이 주장과 근거를 자연스럽게 종합하므로 문맥이 완결된다.

④ X
'이렇게 보면'으로 이미 앞의 주장과 근거를 종합한 결론이 제시된 뒤이므로, 그 사이에 원인 문장을 넣으면 '때문이다'가 직접 뒷받침할 대상과 멀어진다. 틀린 위치는 ④이며, 올바르게는 결론에 앞서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바로 뒤인 ③에 놓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세균 오염이 '자연식품은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라는 글 전체의 주장과 넓게 관련된다는 점만 보고 ①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때문이다'는 바로 앞 주장에 대한 원인을 요구하므로, 가장 직접적인 결과 문장인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뒤를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먼저 '때문이다'와 같은 인과 표지를 확인하고, 앞에는 그 원인이 설명할 결과·주장이 오는지 살핀다. 다음으로 '이렇게 보면'과 같은 지시 표현이 삽입 문장까지 포함한 앞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때문이다' 앞에는 결과, '이렇게 보면' 앞에는 종합할 주장과 근거가 온다.

NoteBase

문 7. 언어 예절로 옳은 것은?

① (학생이 선생님에게) 저희 아버지는 3층에 볼일이 계세요.
② (판매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③ (어머니가 이웃 사람에게) 우리 딸은 모르는 건 꼭 저에게 여쭤 봐요.
④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 넥타이 정말 멋지시네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 표현이 실제로 높여야 할 사람을 향하는지, 사물이나 화자 자신을 잘못 높인 것은 아닌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시-'나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 '여쭙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사물 자체나 화자 자신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 표현이 누구를 높이는지 문장 성분과 화자·청자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계세요'는 '볼일'을 높이는 꼴이어서 부적절하다. 아버지를 높이는 뜻이 드러나도록 '저희 아버지는 3층에 볼일이 있으세요.'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 '없으십니다'의 주체는 손님이 아니라 '주문하신 사이즈'이므로 사물을 잘못 높였다. '손님, 주문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X — '여쭤 봐요'의 '여쭙다'는 질문을 받는 대상인 화자 자신을 높이는 말이므로, 어머니가 이웃 사람에게 말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우리 딸은 모르는 건 꼭 저에게 물어봐요.'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하면서 '멋지시네요'의 '-시-'로 할아버지를 높인 표현이다. '할아버지는 그 넥타이를 매니 정말 멋지시네요.'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언어 예절에 맞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높임의 대상인 사람이 문장에 함께 등장하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 서술어의 주체는 각각 '볼일'과 '사이즈'이다. ③은 '여쭙다'가 공손한 말이라는 점만 보고 고르기 쉽지만, 그 말이 높이는 대상이 화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잘못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높임 표현이 결합한 서술어의 주체나 객체를 찾고, 그 대상이 실제로 높여야 할 사람인지 확인한다. 사물이 주체이거나 화자 자신이 객체라면 높임이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시-’는 높일 주체에게, ‘여쭙다’는 높일 객체에게 사용한다. 사물과 화자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NoteBase

문 8. 다음 의견에 대한 반대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터넷 신조어를 국어사전에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의 역할은 모르는 말이 나올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습', '멘붕' 같은 말은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① '멘붕'이나 '안습' 같은 신조어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면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② 영국의 권위 있는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은 최근 인터넷 용어로 쓰이던 'OMG(어머나)', 'LOL(크게 웃다)' 등과 같은 말을 정식 단어로 인정하였다.

③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우리말이 현재보다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더 많은 말을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멘붕'이나 '안습' 같은 말들은 갑자기 생긴 말로 오랜 시간 언중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주장과 각 선지의 논리적 방향을 비교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반박하는 논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찬성 논거는 인터넷 신조어를 국어사전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근거이다. 반대 논거는 그 주장의 전제나 필요성을 약화하여 사전 등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끄는 근거이다. 이 문항에서는 '널리 쓰인다'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쓰일 말인가'가 핵심 대립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신조어의 사전 등재 필요성을 강화하므로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의 논거이다. 틀린 판단은 이를 반대 논거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널리 쓰이는 신조어의 사전 등재를 지지하는 논거이다.

② X
권위 있는 사전이 인터넷 용어를 정식 단어로 인정한 사례는 신조어도 사전에 등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찬성 측의 논거이다. 틀린 판단은 이 사례를 반대 논거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신조어의 사전 수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③ X
더 많은 말을 사전에 등재하면 우리말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전 등재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므로 찬성 측의 논거이다. 틀린 판단은 이를 반대 논거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언어의 풍부함을 근거로 등재 확대를 지지하는 논거이다.

④ O
'멘붕', '안습' 같은 말이 한때만 유행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이는 어휘로 보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유행성이 강한 신조어를 사전에 곧바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널리 쓰인다'는 표현만 보고 신조어의 가벼운 성격을 떠올리거나, ②의 영어 사전 사례가 국어사전과 다르다는 점에만 주목하면 논거의 방향을 놓치기 쉽다. ①~③은 모두 사전 등재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긍정적 효과를 말하는 찬성 논거이고, ④만 신조어의 일시성을 들어 등재의 타당성을 약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문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각 선지가 그 결론을 더 믿게 만드는지 덜 믿게 만드는지 판단한다. 결론을 강화하면 찬성 논거이고, 전제·필요성·효과를 약화하면 반대 논거이다.

암기 포인트

널리 쓰임은 등재 찬성, 일시적 유행은 등재 반대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는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 나는
가시는 ᄃᆞᆺ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① 4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② 후렴구의 삽입으로 연을 구분하고 있다.
③ '이별의 안타까움 – 소망 – 체념 – 용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려 가요 「가시리」의 율격과 후렴구, 시상 전개, 화자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시리」는 이별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임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보내 주면서,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각 연 끝의 '위 증즐가 대평성대'는 본문의 의미 전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후렴구로, 연을 구분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4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틀린 표현이다. 이 작품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 나는 / 버리고 가시리잇고 / 나는'처럼 일반적으로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이다.
② O — 각 연에 반복 삽입된 후렴구 '위 증즐가 대평성대'가 연과 연을 구분하고 규칙적인 운율을 형성한다.
③ X — '이별의 안타까움－소망－체념－용서'라는 전개가 틀렸다. 제2연은 자신을 두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제4연은 임이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이별의 안타까움－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감정의 절제와 체념－임의 귀환에 대한 소망'의 흐름이다.
④ X —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틀린 설명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임을 보내 주면서도 곧 돌아오기를 바란다. 올바르게는 '이별의 슬픔과 임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후렴구의 '대평성대'만 보고 작품 전체를 임금과 나라에 관한 노래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후렴구는 본문의 서정적 의미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작품의 중심 정서는 본문에 나타난 임과의 이별 및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제2연의 원망과 제4연의 귀환 소망을 서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가요의 형식 문제에서는 먼저 반복되는 후렴구가 연 구분과 운율 형성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정서 전개 문제에서는 각 연의 핵심 시어를 순서대로 연결한다. 이 작품은 '가시리잇고'에서 이별의 안타까움, '엇디 살라 하고'에서 원망, '잡사와 두어리마나는'에서 붙잡고 싶은 마음의 절제, '도셔 오쇼셔'에서 귀환 소망을 읽는다.

암기 포인트

「가시리」는 3음보, 반복 후렴구, 이별의 슬픔과 임의 귀환 소망을 중심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0.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중국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꽃매미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었다는 건 이미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에 들어섰다는 걸 방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2006년 이후 꽃매미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꽃매미는 1932년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어느 일본인 곤충 학자는 기록했다. 그렇다면 193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2006년부터 문제가 된 걸까?
>
> 2006년 이전까지 ( ) 그러나 2006년에 서울에 유입된 꽃매미는 서울이 살기 적합한 기후로 변했다는 걸 감지했고, 알의 상태로 월동하고 봄에 태어나는 토종 곤충 행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래 유입 종은 자연계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① 꽃매미는 우리나라에서 알의 상태로 있었다.
② 꽃매미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다.
③ 꽃매미는 천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했다.
④ 꽃매미는 토종 곤충에 밀려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빈칸 뒤의 역접 표현 '그러나'와 2006년 전후의 변화 내용을 근거로 빈칸에 들어갈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접은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달라짐을 나타내는 관계이다. 빈칸 뒤에서는 2006년에 유입된 꽃매미가 서울의 기후가 살기에 적합해졌음을 감지하여 알 상태로 월동하고 번식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알의 상태로 있었다'는 표현이 틀리다. 알 상태로 월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서울에 유입된 꽃매미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200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다'이다.
② O — 2006년 이전에는 꽃매미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2006년에 유입된 꽃매미는 기후가 살기 적합하게 변했음을 감지하고 월동과 번식을 시작했다는 대조가 자연스럽다.
③ X — '천적 때문에'라는 원인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고, '살지 못했다'는 말도 1932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내용과 어긋난다. 올바르게는 '200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급증하지 못했다'이다.
④ X — '토종 곤충에 밀려'라는 원인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200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932년에 꽃매미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보고 그때부터 월동과 번식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은 단순한 존재 여부와 기후 적응에 따른 급증을 구분하며, 빈칸 뒤의 '그러나'가 2006년 이전과 이후의 기후 적응 상태가 반대임을 알려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바로 뒤의 접속어를 먼저 확인하고, 접속어 뒤에서 새롭게 나타난 상태를 찾는다. '그러나' 뒤에서 기후가 살기 적합하게 변했다고 했으므로, 앞에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 적응하지 못했다는 반대 내용을 놓는다.

암기 포인트

'그러나' 뒤가 기후 적응의 성공이면, 그 앞은 기후 적응의 실패이다.

NoteBase

문 11.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어로 적절한 것은?

>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① 그러나　② 따라서　③ 그러므로　④ 그렇기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대조 관계에 알맞은 접속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조 관계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에서 그와 반대되거나 구별되는 내용을 제시하는 관계이며, 대표 접속어는 '그러나'이다. 인과 관계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그 결과가 되는 관계이며,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기에' 등이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문자 메시지로 사과하는 것도 의사 전달의 한 방법'이라는 앞 내용을 인정한 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찾아가는 것'이라고 다른 판단을 제시하므로 대조의 접속어 '그러나'가 적절하다.
② X — '따라서'는 앞말을 원인이나 근거로 삼아 결과를 이끌 때 쓰는 접속어이므로 이 문맥의 대조 관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는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③ X —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따른 결론이나 결과를 나타내므로, 두 사과 방법의 효과를 대비하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는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④ X — '그렇기에'는 앞말을 이유로 뒤의 결과를 제시할 때 쓰므로,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대조 관계와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는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뒤 문장이 앞 문장의 내용을 이어 설명한다고만 보면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기에'와 같은 인과 접속어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도 방법이다'와 '직접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인정과 대비의 관계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 문장 때문에 뒤 문장이 생긴 것인지, 앞 문장을 인정한 뒤 다른 내용이나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구분한다. 원인과 결과이면 인과 접속어를, 인정 뒤의 반대·대비이면 '그러나'를 선택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원인→결과는 '따라서·그러므로·그렇기에', 인정→대비는 '그러나'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 우리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우리 경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어떤 기술은 인간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지만, 어떤 기술은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라디오는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핵무기처럼 아무리 민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기술도 있다. 인간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기술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예속되어 버린다.
>
>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지만, 기존의 가능성 중 일부를 소멸시킨다. 따라서 이렇게 도입된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사회 세력들과 조직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바꾼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더 힘을 가지게 된 그룹과 힘을 잃게 된 그룹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수반된다.
>
> 기술 중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도 있지만, 대규모 기술 시스템은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진다.'라고 계속해서 믿다가는 기술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그것도 비판적이면서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기술을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② 기술은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써 인간 사회의 진보를 가능케 한다.

③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④ 기술은 양면성을 지니므로 사회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내용과 마지막 문단의 결론을 연결하여 글쓴이가 말하려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심 내용은 글쓴이가 글 전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핵심 주장이다. 이 글은 기술이 인간과 사회를 바꾸며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결과를 함께 낳는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러한 기술의 양면성을 비판적이고 균형 있게 다룰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기술을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이다. 글은 기술을 통제할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을 중심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기술을 비판적이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인간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이다. 글은 기술이 인간관계와 권력관계를 바꾼다고 보지만, 그 변화가 언제나 진보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술은 사용 방식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하거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등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양하기 때문에'이다. 글은 기술 발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어떤 기술은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특히 대규모 기술 시스템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면서 기존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사회 세력과 조직의 권력관계도 바꾸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술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이 선지가 글의 결론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글에 나온 '통제', '인간관계와 권력관계의 변화', '예측하기 어려움'이라는 일부 표현을 활용하지만, 각각 글에 없는 해결책·진보라는 단정·잘못된 원인을 덧붙였다. 부분적으로 비슷한 표현보다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한 궁극적 결론을 중심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내용 문제에서는 먼저 각 문단의 공통 화제를 찾고, 마지막 문단의 결론이 앞선 설명을 포괄하는지 확인한다. 글의 일부만 옳긴 선지, 글에 없는 원인이나 해결책을 덧붙인 선지, 가능성을 필연으로 바꾼 선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기술의 양면성은 비판적·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을 요구한다.

NoteBase

문 13. ‘입술소리(양순음)’로만 묶인 것은?

① ㄱ, ㄲ, ㅋ, ㅇ
② ㄷ, ㄸ, ㅌ, ㄴ
③ ㅁ, ㅂ, ㅃ, ㅍ
④ ㅅ, ㅆ, ㅈ, ㅉ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좁히는 위치인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입술소리(양순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입술소리(양순음)는 두 입술을 맞닿게 하거나 좁혀 내는 자음으로, ㅁ, ㅂ, ㅃ, ㅍ이 해당한다.
여린입천장소리는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고, 잇몸소리는 혀끝과 윗잇몸 부근에서 나는 소리이며, 센입천장소리는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ㄲ, ㅋ, ㅇ은 모두 입술소리가 아니라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올바르게는 ‘여린입천장소리로만 묶인 것’이다.
② X — ㄷ, ㄸ, ㅌ, ㄴ은 모두 입술소리가 아니라 잇몸소리이다. 올바르게는 ‘잇몸소리로만 묶인 것’이다.
③ O — ㅁ, ㅂ, ㅃ, ㅍ은 모두 두 입술을 조음 기관으로 사용하는 입술소리이므로 입술소리로만 묶여 있다.
④ X — ㅅ, ㅆ은 잇몸소리이고 ㅈ, ㅉ은 센입천장소리이므로 입술소리만으로 묶인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잇몸소리와 센입천장소리가 함께 묶인 것’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자음들이 모양이나 발음의 세기 면에서 비슷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제에서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구별이 아니라, 발음할 때 어느 위치를 사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자음을 실제로 발음하면서 두 입술이 맞닿거나 좁혀지는지를 확인한다. ㅁ, ㅂ, ㅃ, ㅍ처럼 두 입술을 사용하는 자음만 있으면 입술소리로만 묶인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입술소리는 ‘마·바·빠·파’의 첫소리인 ㅁ·ㅂ·ㅃ·ㅍ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집은 허름하지만 아까 본 집보다 가격이 만만잖다.
②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③ 청소한 것 치고는 그다지 깨끗지 않았다.
④ 넉넉지 못했지만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하지'가 줄어드는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만만하지 않다'는 '만만치 않다' 또는 '만만찮다'로 줄여 쓸 수 있다. 따라서 '마만찮다'가 아니라 '만만찮다'로 적는다. 한편 '깨끗하지'와 '넉넉하지'처럼 '하' 앞말의 받침이 안울림소리인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어 '깨끗지', '넉넉지'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마만찮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가격이 보통이 아니게 비싸다'는 뜻에서는 '만만하지 않다'의 준말인 '만만찮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뜨다'는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퍼 올린다는 뜻이므로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는 올바른 표현이다. '밥상을 물렸다'도 밥상을 치우게 했다는 뜻으로 바르게 쓰였다.
③ O — '깨끗하지'에서 '하'가 줄어든 '깨끗지'는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그다지 깨끗지 않았다'는 맞춤법에 맞는다.
④ O — '넉넉하지'에서 '하'가 줄어든 '넉넉지'는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넉넉지 못했지만'은 맞춤법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①의 '마만찮다'를 익숙한 말처럼 흘려 읽기 쉽다. 첫 두 음절의 순서를 확인하면 '마만-'이 아니라 '만만-'이어야 한다. 또한 ③과 ④의 '깨끗지', '넉넉지'를 무조건 '깨끗치', '넉넉치'로 고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원래 형태로 되돌려 확인한다. '마만찮다'는 원형인 '만만하다'와 맞지 않으므로 틀리고, '깨끗지·넉넉지'는 각각 '깨끗하지·넉넉하지'의 올바른 준말이므로 맞다.

암기 포인트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깨끗하지 → 깨끗지, 넉넉하지 → 넉넉지이다.

NoteBase

문 15.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촉구하는 표어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비유를 통해 언급할 것 ○ 대구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① 스마트폰은 당신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한 인생, 이제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② 스마트폰 중독은 여러분 인생에 절망의 늪이 됩니다
스마트폰 해방은 여러분 인생에 희망의 샘이 됩니다

③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당신, 인생에 출구는 없습니다
미래의 스마트한 삶은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부터

④ 현재의 스마트한 삶을 스마트폰에서 찾은 당신
미래의 스마트한 삶도 스마트폰에서 찾을 당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은유법으로 드러내면서, 서로 대응하는 문장 구조에 반대되는 의미를 배치한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유법은 '처럼'이나 '같이'와 같은 연결어 없이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시하는 표현법이다. 대구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어 놓는 표현법이고, 대조법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맞세워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법이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구조가 대응하는 두 문장 안에 상반된 의미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스마트폰은 당신 인생의 나침반'에는 은유가 쓰였지만, '나침반'은 스마트폰의 역기능이 아니라 긍정적 안내 기능을 나타낸다. 또한 두 문장에 반대되는 의미의 짝이 없다. 올바르게는 스마트폰의 해로운 기능을 은유로 표현하고, 그와 반대되는 바람직한 사용의 결과를 대응되는 구조로 제시해야 한다.

② O
'스마트폰 중독'을 '절망의 늪'에, '스마트폰 해방'을 '희망의 샘'에 빗대어 역기능과 그 극복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중독-해방', '절망-희망', '늪-샘'이 서로 대조되고, '여러분 인생에 …이 됩니다'라는 문장 구조도 나란히 대응하므로 대구와 대조가 모두 실현되었다.

③ X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인생에 출구는 없습니다'는 스마트폰 의존의 부정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두 문장의 구조가 서로 대응하지 않아 대구법이 분명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스마트폰 중독은 삶의 출구를 막고,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출구를 연다'처럼 비슷한 구조에 반대 의미를 배치해야 한다.

④ X
'현재-미래'와 '찾은-찾을'이 형식상 대응하지만, 두 문장 모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한 삶을 찾는다는 같은 방향의 뜻이어서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나타내는 은유도 없다. 올바르게는 스마트폰 의존의 부정적 결과와 적절한 사용의 긍정적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서로 맞세워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나침반'이라는 은유만 보고 고르기 쉽고, ④는 '현재-미래'의 짝만 보고 대조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은유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은유가 역기능을 나타내는지, 대구의 형식뿐 아니라 의미상 대조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스마트폰의 해로운 기능이 다른 대상에 빗대어졌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두 문장의 구조가 대응하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 안의 핵심 낱말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인지 확인한다. 세 조건이 모두 맞는 선지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은유는 동일시, 대구는 구조의 대응, 대조는 의미의 반대이다.

NoteBase

문 16. 고유어인 것은?

① 고생 ② 얼굴 ③ 사탕 ④ 포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유어와 한자어를 어종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유어는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므로, 한자로 풀이되는지를 확인하면 고유어와 구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고생'은 한자 '苦生'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고생이 고유어이다'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고생은 한자어이다'이다.
② O — '얼굴'은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닌 고유어이다.
③ X — '사탕'은 한자 '砂糖'에서 온 한자어이다. '사탕이 고유어이다'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사탕은 한자어이다'이다.
④ X — '포도'는 한자 '葡萄'에서 온 한자어이다. '포도가 고유어이다'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포도는 한자어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사탕'과 '포도'는 일상에서 매우 자주 쓰여 고유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둘 다 한자로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익숙하게 쓰이는 말인지가 아니라 말의 기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가 대응하는 한자를 지니는지 먼저 확인한다. '苦生·砂糖·葡萄'처럼 한자로 풀이되면 한자어이고, 한자어·외래어가 아닌 '얼굴'은 고유어이다.

암기 포인트

얼굴은 고유어, 고생·사탕·포도는 한자어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최근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 유엔의 조사 결과, 이대로 가면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사막화란 건조 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지 황폐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과도한 경작으로 땅을 혹사시키거나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을 파괴하는 인간의 잘못된 활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막화는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그중 특히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이고 중동이나 호주, 중국도 심각한 수준이다.
>
> 사막화의 피해는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생산력을 잃은 토지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되고 농경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식량 생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식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화 과정을 거쳐 식수로 만들고 있다.

① 사막화를 막는 방안
② 사막화가 심한 지역
③ 사막화 진행 이유
④ 사막화의 정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에 실제로 언급된 내용의 범주를 확인하고, 사막화를 막는 방안과 사막화로 인한 식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막화는 건조 지대에서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변화나 인간의 잘못된 활동으로 토지가 황폐해지는 현상이다. 글은 사막화의 정의, 원인, 심각한 지역, 피해를 설명한 뒤 일부 나라가 식수 부족에 대응하여 바닷물을 담수화해 식수로 만들고 있다고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사막화를 막는 방안'이다. 글의 바닷물 담수화는 사막화 자체를 막는 방안이 아니라 사막화로 식수가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하여 식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올바르게는 '사막화로 인한 식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② O
글은 사막화가 특히 심각한 곳으로 아프리카를 들고, 중동·호주·중국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막화가 심한 지역이 언급되어 있다.

③ O
글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의 변화와 과도한 경작·무분별한 벌목 같은 인간의 잘못된 활동을 사막화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사막화 진행 이유가 언급되어 있다.

④ O
글은 사막화를 '건조 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지 황폐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막화의 정의가 언급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마지막 문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를 사막화 자체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기 쉽다. 그러나 바로 앞 문장의 피해인 농경 불가능과 식수 부족에 이어 담수화로 식수를 만든다고 했으므로, 직접 해결 대상은 식수 부족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명사와 본문의 해당 문장을 대응시킨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지시 표현은 바로 앞의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원인 제거·현상 방지·피해 대응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담수화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막화 방지가 아니라 사막화로 인한 식수 부족에 대한 대응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진술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 문명은 대개 물질적인 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반면에 문화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성과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① 대조 ② 분류 ③ 예시 ④ 유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명과 문화를 설명한 뒤 두 개념의 차이를 맞세운 진술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글은 문명을 '물질적 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거론할 때 쓰는 용어'로, 문화를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 과정과 그 성과를 총칭하는 용어'로 설명하며 두 개념을 '반면에'로 대비한다.
분류는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는 방식이고, 예시는 일반적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주는 방식이며,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대상을 설명하거나 추론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문명과 문화를 나란히 제시하고 '반면에'를 사용하여 두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므로 대조에 해당한다.
② X — '분류'는 잘못된 판단이다. 글은 하나의 상위 개념을 일정한 기준으로 하위 갈래로 나누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밝히는 대조이다.
③ X — '예시'는 잘못된 판단이다. 글에는 일반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두 개념을 맞세워 설명하는 대조이다.
④ X — '유추'는 잘못된 판단이다. 글은 두 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설명하거나 추론하지 않고 차이점을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대조이다.

오답 포인트

문명과 문화를 각각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류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는 하나의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고, 이 글의 핵심 표지인 '반면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조를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면에, 그러나, 이와 달리'처럼 차이를 드러내는 연결 표현과 서로 맞서는 속성이 보이면 대조로 판단한다.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누면 분류, 구체적 사례를 들면 예시, 유사성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유추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차이는 대조, 갈래는 분류, 사례는 예시, 닮은 점은 유추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말이 옳게 쓰인 것은?

① 세계를 다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의 산수갑산 같은 오지는 많지 않다.
② 조부님은 한국전쟁 중에 홀홀단신으로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셨다.
③ 그들과 마주한 순간 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몰린 것처럼 체념하고 말았다.
④ 사람이 환골탈태한다고 하지만 그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웠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의 정확한 표기를 알고 문맥에 맞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 성어는 소리가 비슷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쓰지 않고 정해진 형태대로 써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삼수갑산', '혈혈단신', '절체절명', '환골탈태'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산수갑산'은 잘못된 표기이다. 몹시 험하고 외진 곳을 이르는 말은 '삼수갑산'이므로, '우리나라의 삼수갑산 같은 오지'로 고쳐야 한다.

② X
'홀홀단신'은 잘못된 표기이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을 뜻하는 말은 '혈혈단신'이므로,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여'로 고쳐야 한다.

③ X
'절대절명'은 잘못된 표기이다.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뜻하는 말은 '절체절명'이므로,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환골탈태'는 사람이 이전과 아주 다르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함을 뜻하는 정확한 표기이다. 사람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문맥에도 알맞다.

오답 포인트

'산수갑산'은 '산수', '홀홀단신'은 '홀로', '절대절명'은 '절대'처럼 익숙한 말에 이끌려 잘못 적기 쉽다. 문맥상 뜻이 자연스럽더라도 한자 성어의 고정된 표기가 틀리면 옳은 표현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 성어를 문장에서 떼어 내어 정확한 고정형을 먼저 떠올린 뒤, 그 뜻이 문맥과 맞는지 확인한다. 표기와 문맥이 모두 맞아야 옳게 쓰인 표현이다.

암기 포인트

삼수갑산·혈혈단신·절체절명·환골탈태로 묶어 정확한 형태를 기억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양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글만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라 하며, 착한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의 계급은 서쪽에 벌여 있고, 문관의 차례는 동쪽에 자리 잡았으며, 이들을 통틀어 양반이라고 한다.
>
> … (중략) …
>
> 손에는 돈을 지니지 말아야 하며, 쌀값을 묻지도 말아야 한다.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맨상투 꼴로 앉지 말아야 한다. 식사하면서 국물부터 마시지 말며, 설령 마시더라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젓가락을 내릴 때에는 밥상을 찧어 소리 내지 말며, 생파를 씹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수염을 빨지 말며, 담배를 태울 때에는 볼이 오목 파이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내를 치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 그릇을 차지 말아야 한다. 맨주먹으로 아녀자들을 때리지 말며, 종들이 잘못하더라도 때려서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으면서 팔아먹은 주인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 병이 들어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하면서 중을 불러다 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화롯가에 손을 쬐지 말며, 말할 때에 침이 튀지 말아야 한다. 소를 도살하지 말며,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 — 박지원, 「양반전」 —

① 양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군.
② 양반들은 행동을 규정하는 형식적 예법에 얽매여 있군.
③ 양반들은 글 읽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로군.
④ 양반들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반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행동 규범을 나열한 부분에서 작가가 비판하는 양반의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풍자는 대상의 모순이나 허위를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제시문은 식사법, 옷차림, 말과 행동에 관한 세세한 금기를 길게 열거함으로써 실질보다 체면과 형식적 예법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문 속 양반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진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무례한 태도'이며, 올바르게는 '체면과 겉치레를 중시하며 형식적 예법에 얽매인 태도'이다.
② O — 돈을 지니지 않기, 쌀값을 묻지 않기, 식사 중 소리를 내지 않기 등 일상 행동을 세세하게 제한한다. 이는 양반이 행동을 규정하는 형식적 예법에 얽매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③ X — 제시문은 글을 읽는 양반을 '선비'라고 부른다는 명칭을 소개할 뿐, 글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글을 읽는 양반을 선비라고 부른다'이다.
④ X — 양반이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없다. 틀린 표현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이며, 올바르게는 '양반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금기와 체면을 중시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손에는 돈을 지니지 말아야 한다', '쌀값을 묻지도 말아야 한다'는 대목만 보고 ④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에는 무능력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행동이 없으며, 반복되는 세세한 금기가 직접 드러내는 비판 대상은 형식적 예법과 체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풍자 대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반복되거나 과장된 행동을 먼저 묶어 공통점을 찾는다. 이 글의 금기들은 모두 양반의 체면과 행동 형식을 지키려는 규범이므로, 제시문에 없는 원인이나 책임 전가까지 추론한 선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양반의 세세한 금기 나열은 실질 없는 형식적 예법과 체면에 대한 풍자이다.

NoteBase